



부록

[부록 1] 〈서울시 마을연구 현황〉 분야별
주요 내용

[부록 2] 설문지

[부록 1]

〈서울시 마을연구 현황〉 분야별 주요 내용

1.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격에 관한 연구

강상구, 2014	
평가·전망	○ 마을공동체 사업은 신자유주의의 근본문제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국 자유주의의 문제를 재 생산함 － 마을공동체 운동이 주민 운동의 과정이나 결과로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 당선과 함께 본격화되었기 때문임 － 마을공동체 사업은 생활단위 사회운동이고, 정주자 중심의 사업으로 민주주의나 인권을 위한 투쟁의 주체를 키우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임
대안	〈 마을공동체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 노동조합, 진보정당 등 다른 대항 공동체와 연계 강화 ○ 마을공동체 운동이 사회적 이슈에 반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함(예, 아파트 공동체운동과 부동산 시장에 문제제기 하는 운동, 청소년사업과 입시제도 폐지, 마을 예술 관련 공동체 사업과 노동시간 단축, 에너지 자립마을과 핵발전소 단계적 폐지 등) ○ 행정권력 일반에 대한 비판 및 개입 필요
김동완·신혜란, 2014	
평가·전망	○ 마을만들기 사업을 새마을운동의 모사나 신자유주의 통치의 보완영역으로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지 못함. 마을 담론이 가지는 대안적 역사와 계보를 복원할 필요가 있음 ○ 만들어진 삶의 원리와 실천이 정부 혹은 통치내부로 진입했다는 점에 주목함. 이를 푸코의 대항품행(counter-conduct) 개념을 사용하여 논하고자 함
김상철, 2014	
평가·전망	○ 새마을운동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국가가 자원을 분배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분배의 요구를 자치 자조 프로그램으로 눈돌리기 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 초기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자치역량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점차 행정의 필요에 따른 도구로 바뀌고 있음(초기 복지사업 중심에서 주민의 요구가 아닌 행정의 요구에 의해 안전마을, 아파트 공동체 문제로 넘어간 것이 대표적 사례)
김성윤, 2014	
평가·전망	○ 박근혜의 ‘제2의 새마을운동’(자원봉사활동)과 박원순의 ‘마을만들기’에서 유사점이 나타나는 이유 － 신자유주의에 따른 개별화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 － 정부가 충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파생된 민관협력 관계의 보완물로 위치하는 ‘공동체’운동 － 이는 사회통합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와 윤리적 시민성을 발현하고자 하는 시민 개인들의 이념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써 공동체라는 말의 포괄성·모호성에 기인

	○ 공동체 운동의 한계 － 횡적동일화 논리의 문제 : 종적 동일화 없이 횡적 동일화만으로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인 것. 횡적 동일화 논리에 기초한 공동체적 대안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화폐공동체 수준으로 전락하기 쉬움 － 국가의 특수법인화 : 민관거버넌스 발달 추세에 따라 시민의 참여가 늘수록 국가가 특수법인화가 되는 현상발생
김세용 외, 2013	
평가·전망	〈마을만들기 사업의 몇 가지 평가 지점〉 ○ 주민참여에서 발생하는 문제 － 주민의 행정수행 능력 취약, 개발이익 우선시 － 특정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엘리트가 대표로, 특정 집단만이 참여하는 현상 － 주민참여를 ‘주민만의 참여’로 왜곡하는 경향 및 ‘거주 공간’ 마을로만 협소화 하는 경향 ○ 행정수도 경향 ○ 조례, 전담부서, 교육프로그램, 재정지원, 지원센터 설치 등 종합적 지원체계 미비
대안	○ 마을만들기 교육과 계획 수립방안 － 주민참여 도시계획 수립시 주민교육과 전문가 지원 필요 － 계획안 현실화를 위한 행정 지원 ○ 마을만들기 법제도화 방안 － 도시계획과 연계성 확보 － 정부레벨 간 역할 분담 : 중앙정부는 통합적 추진체계와 재정지원, 시도는 정책지원, 시군은 주민공동체 마을만들기 지원 등으로 역할 분담 － 마을만들기 전문가 양성 : 대만 타이페이시의 ‘마을계획사 자격점정제도’ 사례 수용 필요 ○ 기타 － 마을만들기는 도시계획의 방안이 아닌 하나의 방도라는 관점 필요 － 마을만들기를 우선하는 행정지원 구조 필요 － 주민참여는 만능이 아니라 보편적 사회가치로 확대하는 관점 필요 － 모든 운동과 정책을 마을만들기로 일체화하려는 경향 경계
김태영, 2012	
평가·전망	○ 마을공동체 복원 시, 공동체는 ‘선’이라는 식의 규범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불필요성과 공동체 불가능성 주장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성에 근거한 접근이 필요
김진아, 2014	
평가·전망	○ 마을만들기 사업의 철학적 관점을 공동체주의 정의론으로 제시.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도출한 참여성, 상호작용, 합의성 세가지 요소가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합성을 보임
나종석, 2013	
평가·전망	○ 자본주의적 질서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구상과 실천이 지니는 철학적 의미 － 마을공동체를 상호부조와 연대적 삶의 공간으로 이해 － 다원화된 자치의 공간으로서의 마을공동체 성격 － 사회와 정치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 － 대안적 경제 질서로서 지니는 의미
박주형, 2013	
평가·전망	○ 마을만들기는 신자유주의 도시화에 저항하는 ‘해방적 정치’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신자유주의 정치기획의 일환으로 공동체를 통한 통치를 작동시키려는 사전 전략

	o 새마을운동이 자조와 지도의 모순적인 결합이라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기업가주의와 컨설팅의 모순적인 결합
블로그 몽돌, 2013	
평가·전망	o 서울시 혁신정책의 대상 대부분이 관이 아닌 민이라는 점에서 시민운동의 다양한 영역을 관의 영역으로 흡수하려는 정책 o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의 방침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존재 o 서울시의 자기성찰이 중요
이태영, 2014	
평가·전망	o 소비자가 아닌 토론 가능한 시민으로 성장 방도 요청됨 o 서울과 같은 소비패턴을 유지한 상태로 마을 단위 경제 활성화는 어려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이 필요 o 어떤 마을이 아니라 어떤 삶과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대안	o 정치조직의 역할 필요. 지역정당을 통해 정치적 시민권을 공식화할 필요
이호, 2014	
평가·전망	o 2000년대와 비교해 2010년대 풀뿌리 운동에 나타난 특징 - 마을만들기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성화 및 급속한 제도 또는 행정 포섭 현상 심화 -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및 주민참여제도 확산 - 지역정치에 대한 접근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 -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려는 제도의 변화 o 성과 : 마을공동체와 같은 대안적 개념이 시민사회운동 진영을 벗어나 일반화되고 확산되는 데에 기여 o 문제점 : 마을공동체 사업이 수단적 성격을 띠고 일회성 사업 반복.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 추진현상 발생. 서울시 경우 각기 만들어진 중간지원조직들이 각각 현장을 지원함에 따라 풀뿌리 현장 지원을 매개로 된 중복 업무 발생
위성남, 2013	
평가·전망	o 성미산마을이 중산층의 공간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진보진영의 시각에서 당사자주의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함
정성훈, 2013	
평가·전망	o 도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의 방향은 친밀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그 긴장관계를 주목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함
최순옥, 2013	
평가·전망	o 풀뿌리 주민운동으로 시작된 은평 마을공동체는 은평구와 서울시의 지원으로 공동체 활성화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o 행정기관의 지원은 주민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
하승우 외, 2014	
평가·진단	o 지역운동, 시민운동의 역량이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관이 담당해야할 기본적인 영역을 방치한 사영화의 변형이 될 수 있다는 우려 o 사업 전반이 외부 자원에 의존해 사업 주도권을 두고 대립하는 불필요한 갈등이 등장 o 마을 주민보다 컨설턴트의 구상에 크게 의존
대안	o 생산과 소비의 접합, 마을 정치의 복원, 다름과 갈등의 존재 인정, 공공성 강조, 소수자에게 다가서는 연대, 공론장 창출 등

한반도선진화재단, 2013	
평가·전망	o 박원순이 꿈꾸는 서울시는 글로벌 시대 메가시티인 서울의 특성에 부적합.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 비전 부재 o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같은 공동체 생활형태 복구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이념적 행위 - 마을공동체 : 행정수장이 돈으로 조직을 유도하는 정치 행위 - 협동조합 : 시정부 지원에 의한 협동조합 양산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토대 위협

2. 마을 주체에 관한 연구

김영정·안인숙, 2015	
평가·진단	o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력참가자: 40대, 기혼, 자녀를 둔 주부 o 돌봄을 출발로 한 공공성의 확장 (내아이 → 우리 아이 → 먹거리, 환경, 경제 의제 → 이웃과 조직 → 마을 공공성 추구) o 대안적 “일”의 가능성과 한계 - 마을활동과 일 : 일반노동시장에 진입한 만큼 돈을 벌 수는 없지만, 덜 소비하는 쪽을 선택함. 이는 마을활동의 가치 실현으로 평가함 - 재정난과 정부 지원사업 : 마을기업 수익성 문제로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벌이게 되는 딜레마 빠짐.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서류작업 등의 행정업무 부담을 받음. 이는 성과위주 평가로 부터 기인함 - 저평가 무보수 여성의 일: 남성이 하지 않는 무보수의 일을 여성에 전가시킨다는 비판 존재. 여성 활동가가 아닌 자원봉사자, 아줌마로 인식됨 o 신뢰와 배려의 조직운영원리 발현 - 리더십과 소통방식 :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공적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갈등을 유발하기도 함 - 역량강화의 핵심으로서 학습 - 여성주의 학습의 필요 : 여성주의 교육, 여성운동 단체와의 접촉이 긍정적 영향을 미침
대안	o 여성의 마을 활동 의미화 o 신생마을모임에 대한 이해와 독려, 마을활동 참여자들이 행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제안할 수 있는 장의 필요 o 정성평가 방안 마련 o 정상가족 중심 활동 극복
김우영, 2013	
평가·진단	o 은평구에서 추진된 주민참여사례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 마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형성 사례로 봄 -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로 추진하는 사례는 참여예산, 주거, 교육, 사회경제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
김찬동, 2012	
평가·전망	o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성이 부족한 원인은 주민참여의 수준이 낮기 때문 - 주민자치수준이 낮은 주요 원인은 주민자치를 위한 전제조건인 근린생활에 공동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특히 거주기간이 짧아 지속적인 공동주거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임

대안	<div>o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 독점적인 권한이나 예산, 결정과정의 폐쇄성을 개선하여 마을공동체 단위로 위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원해줄 전문지원조직이 필요. 마을공동체 지원조직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관리인력 교육을 위한 마을공동체 기획조직 구성–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이 실질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 장치 필요</div>
김흥순·원준혁, 2013	
평가·진단	<div>o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사례 평가 결과 주민참여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요인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으로 나타남</div> <div>o 이해관계에 의해 주민들의 의식, 자발성 등이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삶의 질 차원에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함</div>
박현찬, 2012	
평가·진단	<div>o 서울시와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공공지원 정책 방향 제언<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의 개입보다 주민이 주도하면서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함– 다양한 주체들 간의 균형 있는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개방성을 유지하며 이뤄져야 함– 지자체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분담 필요</div>
대안	<div>o 공동체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곳에는 중대규모 지원을 피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모임지원과 의제발굴에 집중해야 함</div> <div>o 헌신적 마을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베를린 마을매니저 시스템’을 참고 할 만함</div> <div>o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의 통합운용을 위한 법제도 보완 필요</div>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4 (네트워크 분석 발표문과 비판토론문)	
평가·전망	<div>o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역 간 네트워크 차이를 확인하고, 마을 네트워크 확대로 마을활동에 대한 애착이 형성됨을 확인함 (우수명)</div> <div>o 위 결론에 대한 비판토론<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유정) 네트워크 분석 현황이 분명히 납득되지 않음. 도시 환경 속에서 ‘네트워크의 성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기현주) 질적조사방법이 필요함. 중복조사활동 자체가 피로도를 높일 수 있음. 성과 관리 측정을 누가 할 것인지 고민 필요함</div>
대안	<div>o 지역별 네트워크 수준의 차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치구별 중간거점 조직 필요</div> <div>o 체계적 네트워크 구축 성과를 위한 체계적인 조사법 필요<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적, 중장기적– 질적 방법</div> <div>o 마을 활동 조직과 관계를 맺고 상시적인 정보수집 및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 혹은 전담 부서 필요</div>
안현찬·박소현, 2012	
평가·진단	<div>o 마을만들기 관점에서 성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례 검토 –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의 역할은 기존의 통념과 차이를 보여줌<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마을만들기 사업에 활용하고자 기대했던 사업 부분 재조정 필요(주민 문화 → 주민생활지원)–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용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관계 맺는 상위, 하위 행정기관의 차이가 있음. 내용에 따라 조직 접근을 세분화하고 선별적 접근이 필요함</div>
이재완, 2014	
평가·진단	<div>o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정책인지도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효과 분석<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주민참여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함</div>

대안	<div>o 정책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 요청<ul style="list-style-type: none">– 워크숍 방식 활용– 해외성공사례 벤치마킹(영국의 마을감정조사 등)– 현행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서비스러닝– 일본의 도시계획포럼 같은 온라인 학습 도입– 교육기관의 다원화(시, 자치구, 시민단체, 지역대학 등)– 평가지표에 홍보와 주민참여가 연결되었는지 확인 후 반영– 교육과 홍보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업 신청 및 지원용어를 쉽고 평이한 용어로 변경</div>
장수정, 2012	
평가·진단	<div>o 마포 두레생협 돌봄두레 ‘어깨동무’의 사례는 여성들에게 전담되었던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적 형태의 돌봄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느슨한 연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사회자본을 형성해가는 과정임</div> <div>o 일반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 지속적 인적자원 확보 문제, 광범위한 돌봄 대상 통합 방법에 관한 과제가 제기됨</div>
전희경, 2014	
평가·진단	<div>o ‘마을’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공/사분리, 성별분업,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한 젠더질서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존재함</div> <div>o ‘비혼’ ‘퀴어’ 페미니스트라는 위치에서 지역공동체운동을 벌여 가고 있는 은평구의 <살림의료사회> 과 마포구의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두 사례를 통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를 재검토<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들 공동체는 한편으로는 이성애-가족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서의 ‘공동체 만들기’를 진행함. 이는 ‘공동체’성 자체를 ‘재정의’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div>
조연숙, 2013	
평가·진단	<div>o 전반적인 성인지 실태 정리, 대안에 평가가 반영됨</div>
대안	<div><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div> <div>o 마을공동체 추진기반 개선방안<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가치 및 균형참여를 명시한 조례정비<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시장의 책무)에 성평등 가치 지향을 명시: 제3조(기본원칙) 3항에서 주민주도의 공동체 조항을 ‘여성과 남성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주도’로 변경: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제15조), 조례시행 규칙 제3조(사업선택 심의회 구성·운영)에서 성별균형 보장 명문화– 성별·연령별 등 주민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 보완<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성평등 가치 반영: 소규모 지역단위 마을주민 특성에 대한 정기적 수요조사</div> <div>o 추진지원체계 개선방안<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가 응시원서, 제안서, 신청서 등 각종 서식에 성별 연령별 정보를 공통정보 사항에 포함– 동등참여를 위한 규약, 합의, 지침 마련– 마을활동가에 대한 성인지 의식 교육과정 제공</div> <div>o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별 성별 특성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활동가의 성별 특성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특성에 맞는 성인지 교육 및 의사소통 교육: 마을공동체 내 상시적 보육서비스 제공</div>

대안	<div><div>：성별 특성에 따른 홍보의 확대 방안, 정보공유의 방식에 대한 개방된 논의 필요</div><div>－사업 참여자 및 일반시민의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반영 방안 마련</div><div>：여성의 경우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참여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직장여성이나 워킹맘 공동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div><div>：남성의 경우 사회적 자본을 모으고 분배하는 방안과 전략에 대한 공통의 고민이 필요</div><div>－일반시민의 성별수요 및 참여확보 방안 마련</div><div>○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제도적 개선방안</div><div>－심사 사업선정 심의기준 및 평가과정에 성인지 관점 반영</div><div>－중간지원인력의 성인지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div><div>：활동가들은 특히 성평등 가치와 마을이슈 발굴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 사업영역별 명확한 활동 범위와 역할에 따른 전문성 수준의 보강, 행동지침이 마련되어야함.</div><div>－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교육</div><div>－성별 맞춤형 행정지원의 특성화</div><div>：예산회계 절차에 대한 간소화</div><div>：각종 상담 및 조력 컨설턴트 활동에 있어서 이성에 대한 소통방법이나 대응방안 교육</div></div>
	최금숙 외, 2013
평가·진단	<div>전체 광역시도에 조사 내용 가운데 서울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div> <div>○ 주민자치회 여성 참여 현황</div> <div>－전체 위원 10,011명 중 여성위원 3,533명으로 36.0%(전국 평균, 32.5%: 제주도 제외)</div> <div>－전체 고문 1,331명 중 여성 고문 226명으로 16.0% (전국 평균, 10.8%, 제주도 제외))</div> <div>－전체 주민자치 위원장 423명 중 여성 주민자치위원장 43명으로 10.2%</div> <div>○ 마을기업 여성참여 현황</div> <div>－마을기업 수 71개, 참여하는 남성 98명, 여성 318명으로 여성 76.44% 차지(전체 69.81%)</div> <div>○ 사례 검토</div> <div>－강북평화의 집 : 친환경 가게 ‘수상한 가게’운영, 주 판로는 지역주민, 전국 가톨릭 교인, 지원 없으면 폐업 위험성 높음</div> <div>－마을무지개(은평구) : 다문화 여성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창출, 영등포, 은평, 서대문구 등 비교적 넓은 활동 범위, 초중고 강의, 월 평균 강사로 1인당 25~40만 원, 서울시 선정 우수 마을 기업</div> <div>－레인보우 해피 잡 (구로구) :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 행정기관 지원 요청</div> <div>－솔트 카페(마포구) : 소금, 커피, 음료 등 판매 및 카페 운영, 염리동 주민자치회가 출자금을 모아 법인 등록, 공무원들의 팔아주기 효과, 경력단절 여성 2명에게 월 1백여만 원의 급여로 상근직 제공</div>
대안	<div>○ 주민자치의 평등 거버넌스 구축</div> <div>－형평성 영향평가 의무화</div> <div>－프로젝트 추진시 ▲소외계층 참여 ▲다양한 그룹 목소리 반영하기 위한 전략 수립 ▲갈등관리의 문제 고려</div> <div>－빈곤평가와 빈곤퇴치 전략 ▲빈곤평가서와 빈곤퇴치전략보고서 제작 ▲여성가족부의 모니터링 ▲국가예산 재분배 과정 전 형평성 영향평가 실시 및 예산 집행 모니터링 ▲평등거버넌스 제도화 노력</div> <div>－정량적 목표와 더불어 권한강화 과정 확대와 같은 정성적 지표 강조</div> <div>○ 여성일자리 창출, 유지, 확대를 위한 마을기업의 사후관리, 지원 강화</div> <div>－중간지원기관의 역할 활성화</div> <div>－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마을 기업 홍보 지원</div> <div>－성장가능성 심사를 통한 지원 기간 연장</div>

최희영 · 이희정, 2014	
평가·진단	○ 성대골마을과 삼각산 재미난마을 사례 검토에서 확인되는 바, 마을만들기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주목할 만큼 확대되는 중

3. 분야별 마을 사업에 대한 사례 연구

1) 마을기업

박소연 · 박인권, 2013	
평가·진단	<div>○ 통인시장 사례를 통해 확인한 마을기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메커니즘 평가</div> <div>－지역자산을 바탕으로 한 생산과 서비스(마을기업)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고정적 판로(전통시장)를 개척</div> <div>－지역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마을기업이 전통시장과 협력관계 구축, 마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상인들의 공동체 의식 확대, 상인 역량 강화와 시장활성화 기여</div> <div>－마을기업의 기업가 정신이 전통시장 서비스 질의 향상에 기여</div> <div>○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필요</div> <div>○ 부동산가치 상승, 업종 변경 등과 같은 부수적 효과에 대한 대비 필요</div>
박학룡, 2012	
평가·진단	○ 마을기업으로서의 ‘동네목수’는 세입자에게는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고, 가옥주에게는 주택개량과 임대소득을 보장하고, 주민에게는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공생전략
이홍택, 2012	
평가·진단	<div>○ 성미산 마을의 경제공동체 사례(마포두레생협, 동네부엌, 성미산밥상, 작은나무카페)를 통해 확인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div> <div>－지역사회의 필요와 지역주민의 요구 반영</div> <div>－구성원들 간의 사회자본 구축의 선행</div> <div>－지역특성에 맞는 창업자금 마련 방법 모색</div> <div>－연관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과의 네트워크 확충</div> <div>－구성원들의 공동의 목표형성</div> <div>－갈등 방지를 위한 소득 분배 구조 구축</div>

2) 복지

김은희, 2013 (칼럼)	
평가·진단	○ 성북구 건강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은 행정기관의 조급성과 성과주의로 인해 조기종료(3년에서 1년). 전형적 행정 주도형 사업으로 서울시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평가 ○ 그러나 시범사업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자발성’이라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평가를 기대하는 것은 부적절
김형용, 2012	
평가·진단	○ 사회서비스의 관 주도형 정책프레임을 극복하고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로 나아가야 함.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를 구현할 장치로 마을공동체가 적합하다고 봄
문종석, 2013 (칼럼)	
평가·진단	○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에서 실시한 ‘나눔반장’ 활동은 관 주도 복지전달체계가 아닌 주민주도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함
서울시 복지재단, 2013	
평가·진단	○ 주민주도성과 주민자치를 가치로 하는 ‘마을지향 복지관’ 되기는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 참여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음
대안	○ 복지관의 역할을 서비스 제공에서 서비스 개발, 제도개선을 고민하는 역할로 변화 추동 ○ 기존의 비마을지향인 사회복지관의 마을지향복지로의 인식변화와 실현을 위해 토론과 설득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간관리자의 역할 필요
이영범, 2013a	
평가·진단	○ 서울시 쪽방촌 환경개선과 자활지원을 통한 거주환경 개선 사업 평가 － 마을공동체를 통한 노후 저층 주거복지의 강조는 삶의 정주성을 강화하고 이웃과의 관계망을 확장 － 주거를 매개로 복지의 다른 영역을 통합하고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 창출 ○ ‘동자동 사랑방’의 경우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자립형 생활복지를 실험하고 있는 사례로 평가
이영범, 2013b	
평가·진단	○ 서울시 건강친화마을 시범사업(2012) 평가 － 첫 해 사업 이후 사업주체도 바뀌고 예산이 축소되는 등 복지와 건강을 결합한 마을공동체 실험은 좌초 － 그러나 보건의로시설에 의존한 의료모델에서 마을공동체의 돌봄에 의한 생활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평가
대안	○ 마을단위의 생활복지와 공간복지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이 요구 ○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협력형 거버넌스 요청
호은지, 2013	
평가·진단	○ 사회복지관은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마을 내 관계망의 연결점과 중심역할을 담당하여 공적 신뢰 관계망을 형성함
대안	○ 서울시 복지관이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을 총괄하며 지역복지 관련 사업을 통합해야 함 ○ 서울시 사회복지관 전 조직의 문화와 환경을 마을지향적으로 개선해야 함
홍현미라, 2013	
평가·진단	○ 여러 마을공동체 사례 검토를 통해 ‘복지마을만들기’ 사업의의와 과제를 확인함

	－ 복지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복지의 적극적인 참여자의 역할을 담당 － 복지마을만들기 사업추진단위의 기능과 역할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마을에서의 추진주체로 사회복지관이 가능하다고 봄
대안	○ 사회복지관이 복지마을만들기 추진주체로 되기위한 과제 － 조례제정 － 공간재생 및 재정지원 － 인력 재배치와 인력수급 방식 조정(주민, 시민활동가를 사회복지관 직원으로 채용 등) － 지역내 타 단체 마을만들기 사업과 공동사업

3) 주거·환경

강진규·이경훈, 2015	
평가·진단	○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법과 비교하여 마을만들기 디자인 가이드 라인 비교함. 결과적으로, 마을만들기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CPTED 원리를 기준으로 유사한 기법을 다수 사용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마을만들기 디자인가이드라인은 마을단위의 통합적인 개선을 목표로 지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었을 시에만 사용가능한 기법과 실질적으로 단독주거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들을 다루고 있어 더욱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
김권수, 2014	
평가·진단	○ 환경재생, 경제재생, 생활재생 등 도시재생사업이 잘 이루어고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 모두 높음 ○ 권역별로 시설과 서비스 등 쏠림현상과 불균형 심함 ○ 생활재생이 다른 도시재생활동에 비해 공동체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경제재생은 공동체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대안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서 환경재생보다 생활재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 경제재생 사업은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출해야 함
김미경, 2013	
평가·진단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진단 － 각 주체의 이해 및 사업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 봉착(주민참여 저조, 주민주도형 이해 낮음) ○ 단계별 추진과정 및 참여주체별 역할 방안 모색 필요
김아름·구자훈 , 2014	
평가·진단	○ 고령 거주자 사업만족도 요소 － 물리적인 정비요소 :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주차환경 개선 － 비물리적인 정비요소 :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경제적 기반 조성
김영국, 2014 (SH 공공주택 대상 커뮤니티 조사)	
	○ 공공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 여건 － 영구임대단지 : 복지관과 복지단체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수혜를 얻고 있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보다는 자활능력을 떨어뜨리고 의존성을 강화

평가·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임대주택 : 부녀회, 노인회 등 주민대표회가 활성화. 경로당, 주민도서관이 주민 주도로 운영- 영구임대단지과 같은 복지혜택을 기대하기 어렵고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관리·운영이 전적으로 주민대표의 역량에 의존- 혼합단지 : 임대-분양 주민간의 갈등으로 주민 대표회 운영이 난항을 겪고 경로당은 분양주민만 이용하는 등 주민회의실, 문고 등 대표적인 시설이 방치. 여가활동에 높은 관심과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o 주민계층별로 커뮤니티 수요특성- 영구임대단지 : 소득창출이 가능한 소일거리나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 지역사회와 화합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 공공임대단지 : 자기개발을 위한 취미활동이나 부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방과후 교실이나 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그램 등에 높은 관심- 혼합단지 : 젊은 주부들을 중심으로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동육아, 품앗이 교육, 합리적인 비용의 취미교실, 동호회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활동. 은퇴후 여가활용을 고민하는 노인들의 경우, 재능기부를 통한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희망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o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6개 프로그램 개발유형을 제시- ‘주민화합형’ 프로그램 : 공공주택 단지 내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향후 마을축제로 발전을 도모- ‘생활지원형’ 프로그램 : 공공주택주민의 경제, 건강, 육아 등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 ‘능력개발형’ 프로그램은 의존성이 높은 임대주민의 자활능력을 향상. 주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 주민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요구- ‘소득창출형’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 문제를 돕고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사회참여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공익실천형’ 마을의 공동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재능기부형’ 프로그램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계층 간 화합을 증진. 주민 주도의 커뮤니티 실천
김철영, 2013	
평가·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o 지역의 대학들이 지역활성화에 관련된 사업과 정책에 참여하는 기회 증가. 지역의 대학과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지역의 활성화와 도시재생의 성공적 모델구축 가능o 대학이 지역사회활성화에 성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2013	
평가·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o 월계 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생태마을만들기 사업 평가- 복지관이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관점에서 마을만들기 실천으로 전환됨-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에 접근하지 않고, 임대아파트 근본적 정책 문제를 제기하지 못함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o 임대아파트 마을만들기의 방향은 계층을 고립시키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o 주거복지정책과 결합되어야 함
남원석·이성룡, 2012	
평가·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o 마을만들기 사업은 재개발이 아닌 주거지 보존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의 대안적 의미. 그러나 뉴타운 사업의 대안적 정비사업으로만 인식되는 경향 존재함o 행정의 성과 지향적 관행과 마을특성과 무관한 기존 사례 답습, 사회경제적 프로그램 부족, 예산 및 지원체계의 미비 등의 마을만들기 제약요인이 존재함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o 지역주민 공통의 관심사,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 상호합의를 통한 결정.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역량 향상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o 주민조직과 주민리더 육성,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주민역량 개발, 민관의 중재역할, 관의 과도한 개입의 지양과 조례·조직·예산 등 지원체계 정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필요함
민현석 외, 2012	
평가·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o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모델로서의 ‘고령친화형’ 모델 제시. 기존 취약계층의 고령자 뿐 아니라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여 평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평가
박경옥·류현수, 2012	
평가·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o 공동체 주거건설에 관한 성미산마을 사례를 분석- 공동체 주거건설에 사전기획과 대지 구입단계까지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하였으나, 법률적인 부분과 재정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 거주자 대표가 있을 경우 거주자와 코디네이터 사이 의견조정이 쉽게 이루어져 상호 갈등이 감소o 공동체 주거건설의 특성상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필요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o 공동체주거의 건설과정에 전체 거주자, 거주자대표, 운영코디네이터, 설계코디네이터와 같은 인적체계의 구성과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필요
박경옥·이상운·류현수, 2013	
평가·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o 다양한 주거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주거인 코하우징의 사례로 성미산 마을 검토- 코하우징은 주택계획과정에 적극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공동생활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의 일부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주택 모델로 평가
박경옥·정인지, 2015	
평가·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성미산마을 거주자의 상호작용과 공동체 의식 분석 결과의 시사점o 마을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주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지속적으로 설정되어야 함o 마을 주민의 사회인구학적 구조를 고려하고 시간적 변화에 따른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로 유지 변경이 필요함o 마을축제가 마을공동체에 기여함o 마을거주 동기에서 공동체적 생활을 위한 동기가 직장 근접성과 같은 편의성에 의한 거주동기보다 공동체의의식이 높게 나타남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o 도심에서 살기 좋은 마을로 거주자의 정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에 양호한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 조건임o 마을축제 운동회 등 공동체 활동이나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함
박인권, 2015	
평가·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o 현대사회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도시비전인 ‘포용도시’ 개념으로 검토- ▲공간적 포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에는 저렴한주택의 무비율제도와 공공임대주택건설 공급정책- ▲참여 및 상호의존성 확대를 위한 정책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해당-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참여와 상호의존성을 확대시킨 정책이나, 서울이라는 도시의 스케일에서 볼 때 매우 소규모 사업에 그치고 있고, 공간적 포용성의 확대에도 기여가 작음
박종문·정현영, 2014	
평가·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o 2012년 참여한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7곳 가운데 3곳의 시범마을(성대골, 새재미, 십자성 마을)과 사업을 중단한 1곳의 일반마을(방아골마을)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함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에너지 자립 마을을 위한 정책방안〉o 마을별 에너지자립 성과관리체계 구축

	<div>o 마을별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행정이 요구</div> <div>o 주택태양광의 사후 관리</div> <div>o 절전 활동에 대한 유인수단 마련(에코마일리지 제도는 절전소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들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함)</div> <div>o 지원체계의 확립과 조정 필요</div> <div>o 성과주의적 사업방식의 탈피. 장기적 관점 요구</div>
박주영, 2014	
평가·진단	<div>o 서울특별시 다세대 주택개량 지원사업 중 4개 사업사례를 조사·분석</div> <div>– 주택개량비용 융자지원제도 문제 : 간접지원 방식인 저리융자지원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반 금융대출에 비한 이점이 없음</div> <div>–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 문제 : 주택개량 상담창구를 설치했으나 주민들의 인식률은 낮았고, 주택개량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연계 가능한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는 부재함</div> <div>– 공간효율성에 대한 문제 : 거주민의 생활 습관에 맞지 않는 평면 구성</div>
대안	<div>o 주민참여에 따른 주택개량비용의 직접적인 지원 및 참여 주민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필요함</div> <div>o 주택개량 지원제도와 마을만들기 행정조직을 주민이 다가가기 쉬운 형태로 설치,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이용되어야 함. 지자체에 전담인력 파견 및 교육 및 홍보 체계 필요함</div> <div>o 효율적 공간디자인으로 인한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면세방식을 도입하여 조세문제 해결 등의 주택개량 전문 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및 민간업체 참여 확대해야 함</div>
박학룡, 2012	
평가·진단	<div>o 재개발의 대안으로 마을기업 방식의 도시재생 전략 추진은 주택개량과 기반시설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의 대안</div> <div>o 마을기업 ‘동네목수’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주민들 간의 관계회복</div>
대안	<div>o 사회·경제적 재생프로그램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재편할 필요</div>
배웅규, 2015	
평가·진단	<div>o 가리봉 재생사업 소개</div> <div>– 2000년대 시작된 뉴타운 사업이 2014년에 해제. 지역 낙후성과 주민갈등 심화된 조건에서 재생사업 시작</div> <div>–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 및 다층화된 주민 내 갈등, 지역 이미지 재고를 위한 통합적 재생 필요</div> <div>– 치유-주민사업발굴-재생사업시행 3단계로 설계하여 추진 중. 먼저 다양한 주민소통 사업 및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신뢰 구축 사업 진행. 재생방안 구체화 단계로 진입</div> <div>– 주민소통 및 주민역량강화 선행의 중요성 확인</div>
배웅규·이하영, 2014	
평가·진단	<div>o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첫 준공 사례인 연남동 분석</div> <div>– 사업추진단계에서 역량이 강화. 관리운영단계에서 역량강화 수치가 하락. 행정 및 지역 내 기득권층과의 갈등</div> <div>–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협의체의 공동체의식의 활성화에 기여</div> <div>– 주거유형의 다양화 실현.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택질 향상</div> <div>– 건축행위의 증가와 뚜렷한 상권형성을 토대로 경제 활성화</div>
송병길, 2013	
평가·진단	<div>o 성미산 마을만들기, 특히 ‘소행주’ 프로젝트는 정주개념 없이 떠돌아야 하는 주민들의 정착을 통해 마을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유도함. 주민참여의 동력은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과 관련됨을 확인함</div>

부록

119

대안	<div>o 육아,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등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마을만들기가 필요함</div>
이은지·최현선, 2015	
평가·진단	<div>o 서울 서대문구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도시 지역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시사점</div> <div>– 소모임을 통한 네트워크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이전에 형성되었음</div> <div>–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마을 현안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작됨</div> <div>–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가 성장함</div> <div>– 마을만들기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함</div>
이주원, 2012	
평가·진단	<div>o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마을형 주거복지연계 방안 필요</div> <div>o 기존 도시재생 문제점의 대안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공동체 육성 사업이 시행됨</div>
대안	<div>o 마을공동체 사업과 마을형 주거복지 연계를 통한 체계 구축</div> <div>o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의식을 파악하여 노후주택관리 및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직접 지원과 단순지원방식의 대안 제시</div>
전대욱·최인수·박소연, 2013	
평가·진단	<div>o 주민, 사회, 국가의 근본적인 인식변화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과 시설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회복가능한 지역공동체’ 마을 조성이 필요</div>
대안	<div>o 안심마을만들기 표준절차 매뉴얼 구성</div> <div>o 지속가능한 안심마을 조성을 위해 높은 주민참여도, 장기적 행·재정적 지원체계 확립, 행정·전문가·중간지원조직의 협력체계 구축</div>
조대원, 2012	
평가·진단	<div>o 서울시에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div> <div>– 주민대표 또는 추진위와 주민들 간의 대립문제, 소요 사업비의 부담주체·관리 및 집행의 문제, 주민참여 방법의 한계 등 기존 재생사업의 문제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div>
대안	<div>o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의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시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항</div> <div>– 사업의 선행절차를 도입, 공모를 통해 대상지 선정</div> <div>– 법적 정비 시 지정기준에서 지역특성의 보존을 중요한 요소로</div> <div>– 다양한 공공지원 수단과 정비수단을 조합하는 방식이 필요</div> <div>– 주민의견 수렴방식의 다양화 및 체계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div> <div>– 마을지원센터와 민간의 마을협의체를 마을보전 추진의 주체로 세워 협력적으로 사업을 진행</div> <div>– 국고지원 확대 사항으로 비용 보조와 관련한 강구가 필요</div> <div>–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 대한 운영비의 운용 및 관리를 서울시의 공공관리자 제도와 연계하여 검토 시행</div>
진희선, 2012	
평가·진단	<div>o 과거 물리적 환경개선에 집중한 공공사업 위주였다면, 오늘날 도시재생은 주민활동이 포함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이는 사회적 재생의 의미임</div>
최인수, 2013	
평가·진단	<div>o 마을만들기의 흐름에 더불어 상향식 흐름을 만들어내는 참여하는 문화의 노력과 함께 안전마을만들기도 이루어져야 함</div>

4) 미디어·문화

강진숙·이은비, 2014	
평가·진단	○ 서울마을미디어를 다종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 공동체미디어가 인과적 원리의 결과물이 아니라 개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차이와 특이성이 원인이 되어 만들어짐 – 공동체 미디어들이 자발적으로 소통, 연대하여 미디어콘텐츠를 생산함 –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미디어활동들을 창출함으로써 현대인들을 억누르던 개인주의 문화에서 벗어나 공동체 의식을 복권시킬 수 있는 대항권력의 가능성을 지님 – 서울마을미디어는 시민저널리즘을 지향하며 주류미디어와는 결이 다른 대안공론장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음
김유경, 2014	
평가·진단	○ 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한 성곽마을만들기라는 관점에서 서울시 행촌동 성곽마을 실태를 분석한 결과, 건축물·외부 공간·사람의 세 측면에서 모두 미흡한 모습을 나타냄
대안	○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은 보존해야 하나, 가치가 낮거나 활용성이 떨어지는 경우 용도전환하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도입해야 함 ○ 외부공간과 사적 공간활용을 둘러싼 주민합의 절차 필요함 ○ 주민, 전문가, 공무원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며, 주민주도성을 보장해야 함
김재윤·이기석, 2013	
평가·진단	○ 종로구 충신동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기존의 제도를 변화시켜 창조적 네트워크를 결성할 수 있는 환경, 문화발전시스템 구축을 마련한 사례 – 기존 마을에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도입·활용하여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이 상호 관계를 맺으며 마을만들기 진행
김희영, 2014	
평가·진단	○ 마을미디어는 마을공동체 내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론장 기능을 하며, 동시에 주류 미디어 중심의 한국 미디어 구조를 다채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의미 지님 ○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공간과 장비, 사람, 유통통로 확보가 필요함
라도삼, 2012	
평가·진단	○ 마을문화 활동은 맹아적 단계임 ○ 마을문화 활동의 주민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임
대안	○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현 시점에서 실태에 기초한 적합한 지원 수행전략(공모형의 확산보다 자발성에 기초한 자생적 확산 필요) – 활동을 촉발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개발과 구축 – 마을문화 활동 촉진마케팅 및 마을 활동 주체인력 양성 – 마을문화 활동의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마을문화 공간 창출 및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 필요(문화 교실 등 동아리를 마을문화 활동기관으로 육성) – 마을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각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

손동유·이경준, 2013	
평가·진단	○ 아카이브는 마을의 지역적 특성과 사람관계, 일상적 삶의 흔적을 기록하고, 소통하며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공간으로서의 역할 가능. 공동체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아카이브 운영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더 중요한 기능과 효과 기대
대안	○ 국가주도 기록관리와 구별되게 창의적인 방법론 필요
이지아, 2014	
평가·진단	○ 2012년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종합계획'을 발표. 한양도성을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목표. 주변마을에 대한 마을공동체 사업과 맞물리면서, 북정마을이 살아 있는 유산인 성곽마을로 새로이 정비됨
장시연, 2014	
평가·진단	○ 마포FM은 미디어 매체로서의 역할보다는 지역 커뮤니티 조직자로서의 역할에 비중이 있음 ○ 마포FM 참여자 네트워크 구성원들은 기존에 커뮤니티 내에서 이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며, 일반 주민들은 다소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있어 참여의 비대칭성을 갖고 있음. 이 같은 결과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접근을 이뤄내는 커뮤니티 미디어의 특징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5) 교육

유민선·강대중, 2013	
평가·진단	○ 학습자의 외부적 환경 또는 사회적 맥락이 아닌 개인과는 구분되는 학습 주체로서 집단을 규정하고 집단 수준의 학습의 전개과정을 성미산 마을 사례를 통해 검토 ○ 성미산 마을의 형성 발전과정의 경우, 집단학습은 하나의 집단이 집단 내 그리고 집단 간 중층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조직화를 통해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임을 보여줌
대안	○ 학습이 집단의 형성 및 발전의 핵심 기제라는 점에서 집단학습에 관한 연구 설계와 연구방법의 방안 모색 필요
이경란, 2013	
평가·진단	○ 성미산 마을 사례 :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와 운동가의 제안을 실천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찾아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배움의 틀을 재구성 – 마을인문학은 주민의 생활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주민의 자기성찰을 통해 생활과 사회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주민과 연구자의 호혜적인 관계망임
이상훈 외, 2013	
평가·진단	○ 성북구 제2기 도시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와 마을만들기 사업추진과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리더를 양성하고 지역주민에게 마을만들기 기회를 부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 추진 – 지자체는 행정지원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함
이호선, 2012	
평가·진단	○ 마을만들기 교육사업을 통해 주민역량강화와 지역 리더 육성 방안 필요함

대안	o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 매뉴얼과 행정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함
황정주, 2013	
평가·진단	o 마을도서관은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키우는 거점 공간으로 평가함. 마을의 다양한 자원과의 활발한 네트워크 형성, 마을만들기 역량 강화, 다양한 주민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마을도서관이 관계망을 통한 사랑방 역할이 될 것임

4. 마을사업과 행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고광용, 2014	
평가·진단	o 중간지원조직 측면에서 성북구와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비교 - 중간지원조직이 있는 성북구는 높은 성과지표를 보이는 반면,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동대문구는 성과가 미미함
김민수, 2015	
평가·진단	o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광진구에서 진행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수립과정 지원사업’에서 나타난 공론장 형성의 문제점을 경험적으로 밝힘 - 공론장 조직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소통이 생략된 채 마을지원센터에서 평가한 정량적 관계망을 근거로 진행함 - 참가자들 간의 소통의 장애가 발생. 공론장이 형성되기에는 너무 짧은 사업 기간이었거나 행정이 갈등을 부추긴 꼴이라 평가 할 수 있음
김은선, 2014	
평가·진단	o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사업비 지원이 주를 이루며, 정산과정에 대한 주민 어려움 호소 o 마을공동체 사업의 참여주체 협소
대안	o 지원금 관련 절차 간소화 o 지속가능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통한 주민이탈 방지 o 사업 주체의 다양화와 확대. 청년과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아이템 필요(영상제작 학습 등)
김정희, 2015	
평가·진단	o 부산은 형식적 거버넌스, 서울시는 불안정 거버넌스로 분류
대안	o 굿거버넌스를 위한 정책과제 -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획 설계 과정에서 주민주도성, 종합적이고 장기적 도시계획과 상호연계 되도록 해야 함 - 주민이 거버넌스의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결정, 예산배분 및 집행 전반에 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서울시는 결정과 집행에서 서울시 → 자치구 마을팀 → 자치구 사업부서 → 주민으로 이어지는 수직 지원체계를 주민-자치구 사업부서-자치구 마을팀-서울시 간의 수평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을사업 연계 추진 권장) - 질적평가 중시되어야 함. 서울시의 경우 과정중심을 강조하지만 질적 평가지표 없음 - 자치역량 강화교육 확대해 훈련된 마을시민 늘리기

문석진, 2013 (서대문구청장의 정책제언)	
평가·진단	o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이 고려할 점은 ▲주민 중심성 확보 ▲사업보다 사람에 대한 지원 확대 ▲칸막이 행정 극복하는 것임 o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개발해야 하고 도시계획과 연계해야만 함 o 20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전형적인 상향식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함. 또한 2012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은 자치구 간 과잉경쟁뿐 아니라 관 주도 사업으로 변질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음
대안	o 마을공동체 맵핑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시 사업부서간, 시-자치구간 정보공유에 대한 투명성 제고 o 마을공동체 활동 촉진과 육성을 위해 전략적 종합계획 마련 요청
서울시, 2013 (토론회자료집 : 주요토론 정리)	
평가·전망	o 행정혁신의 과제와 마을지향행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유창복) o 행정은 마을과 주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정비하고 민간의 기관, 단체는 행정 사업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풀뿌리 단위에서는 행정과 민간이 상호협력하여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해야 함(구자인) o 함께 더불어 즐겁게 사는 ‘슬로우시티’개념 필요. 성과중심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함(최순옥) o 1년 동안 양적 측면에서 추진성과는 만족할 만함 o 마을공동체 사업의 개념이 불분명. 사업추진이 경쟁방식의 선정, 성과 평가 등 행정위주.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 이해, 정보부족으로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박현찬) o 개발주의적 도시정책에서 탈피하여 정책을 차별화하는데 성공했으나 마을을 이상화하는 것일 수 있음(신원철)
양재섭·김인희, 2013	
평가·진단	o 서울의 마을단위계획은 대부분 서울시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자치구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대안	o 자치구의 역할 재정립 - 서울시의 협력자이자 주민들의 조력자로 재정립 - 자치구 마을계획 수립 권한 강화 - 자치구에서 마을단위 계획에 대한 지원하는 전담팀 구성, 전문 인력 확보. - 마을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양재섭·남선희, 2015	
평가·진단	o 진단 - 대부분 지자체가 마을만들기를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사업으로 인식함 - 주민공동체 활성화보다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하는 대안적 정비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 및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지를 모아 진행하기 보다 전문가와 공공이 주도하는 경향 존재함 -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역할 분담이 이뤄지지 않은 채 마을만들기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이 광역지자체 주도로 운영됨
대안	o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 지역주민주의 조력자, 지원자로서의 역할 재정립 -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역할 분담 - 마을만들기 지원예산과 기금설치 - 마을만들기 전담 및 지원조직 운영, 전문인력 확보 - 주민조직 지원 및 주민리더 발굴, 교육프로그램 운영 - 마을만들기의 제도화 및 모니터링체계 마련

여관현, 2013	
평가·전망	o 성북구 장수 마을 사례를 통해서 본 마을만들기에서 공동체 성장의 시사점 - 다양한 프로그램이 공동체 형성에 기여 - 공동체는 단순히 시간 상 순차적으로 형성·성장되지 않음
대안	o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것 : 마을의 공통된 문제의식, 주민참여 프로그램, 주민교류 공간, 다양한 주민모임
여관현·계기석, 2013	
평가·진단	o 마을만들기 조례는 내용적 또는 구성적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이지 않음 o 조례제정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변화되어야함. 장기적 계획 하에 마을만들기 관련 법규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
대안	o 마을만들기 조례의 제정 방향 -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차별적 조례 제정 - 광역지자체와 기초단체 간의 제도적 위계가 정립된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지역적 특성반영 - 주민이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조례 제정 - 도시계획이라는 제도적 맥락과 연계된 조례 확립
오완석, 2013	
평가·진단	o 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 - 법률적 시스템 문제 및 중복지원 등의 문제 발생 o 서울시의 경우 2012년 구청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여전히 사업을 나열해서 공모하는 방식인 상향식 방식
대안	o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 관계의 제도화를 위해 - 정부와 광역 시도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설치 - 자치단체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종합관리하기 위한 중간조직설립 필요(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장원, 2014	
평가·진단	o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관주도에 해당 o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함 o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 o 갈등 중재 기능 부재
대안	o 포괄보조금제와 인정제도를 활용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 o 정량적 평가에서 벗어나야 함 o 아카이브 구축과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o 기초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의 현실성 높여야 함
전대욱·김혜인·김건위, 2013	
평가·진단	o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주도성을 훼손하지 않는 단계별 정책지원 전략이 필요함
대안	o 단계별 지원전략 제안 - 1단계 : 공동체발전 선순환고리 활성화를 위한 사전준비 단계(이해관계 진단 및 공동의 목표 도출) → 공동체리더십 특화자원과 중간지원 조직의 지원 - 2단계 :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및 주민참여의 기제형성을 위한 소통 및 토론 → 중간지원 조직, 지역전문간 그룹의 지원 - 3단계 : 공동체 협력활동 추진 및 외부지원에 의한 촉진 → 정부 등 외부의 재정 지원

대안	- 4단계 : 협력활동의 성과 및 마을자산 축적에 대한 측정 및 인식의 공유 → 공동체 리더십 지원 - 5단계 :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소통과 재합의 → 중간지원조직, 공동체 리더십 지원
조복경, 2014	
평가·진단	o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체로 주민, 행정, 전문가 차원의 변이를 은평구와 강남구 두 사례로 분석함 - 행정 차원 : 강남구의 공무원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강요된 주민참여’라는 비판적 견해를, 은평구는 담당 공무원의 관심 수준이나 태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적극적임을 확인함 - 전문가 차원 : 마을활동가 간 차이점은 크게 확인이 되지 않음. 다만 지역 내 주민과의 접촉 기회 혹은 관련 공무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등에 있어서는 강남구는 제한적 관계인 반면, 은평구는 지속적이고 잦은 교류를 보임 - 주민 차원 : 전반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식에서 강남구보다 은평구 주민들이 긍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2]

‘새로운 서울 마을공동체 정책수립을 위한 아젠다 연구’ 설문지

‘새로운 서울 마을공동체 정책수립을 위한 아젠다 연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새로운 서울 마을공동체 정책수립을 위한 아젠다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사의 일환으로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답변은 본 연구 외에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 결과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귀하는 그동안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래 평가 항목에 체크해주시요.

1-1. 마을사람 키우기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창의적 마을활동가 육성	○	○	○	○	○
청년의 활력과 역량 활용	○	○	○	○	○
여성의 활동과 역량 강화	○	○	○	○	○

1-2. 마을살이 함께 하기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함께 사는 재미가 있는 공동체 문화 육성	○	○	○	○	○
이웃 돌봄 활성화	○	○	○	○	○
마을경제 활성화	○	○	○	○	○
에너지 절감 마을 조성	○	○	○	○	○

1-3. 민관협력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주민주도의 민관협력 체계 구축	○	○	○	○	○
현장 밀착형 마을 인프라 구축	○	○	○	○	○
마을지향 행정 시스템 정착	○	○	○	○	○

2. 귀하는 2기 마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분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자생적 주민 활동의 발굴과 지원
②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 보완
③ 주민, 마을사업 간 상호 협력구조 형성
④ 주민의 민주의식, 시민성의 복원을 위한 교육
⑤ 마을사업의 실질적 주민자치로의 전환을 위한 프로세스
⑥ 기타

3. 청년과 마을활동가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가까운 번호에 체크해주시요.

3-1. 마을활동은 자원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마을사업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1	2	3	4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	○	○	적극 동의한다

3-2. 마을활동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마을활동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인건비가 마을사업비에 지원되어야 한다.

	1	2	3	4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	○	○	적극 동의한다

3-3. 마을활동가들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다음 유형 중 선호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거나 새로운 내용을 제안해 주십시오.

- ① 마을활동가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실질적 생계 지원

② 마을 자체 내에서 자립 가능한 시스템 마련(기금조성, 사회적 기업 설립 등)

③ 기타 (⇒ 3-4 질문으로)

3-4. 마을활동가들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기타 방안이나 의견이 있으실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는 주민공모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래 각 항목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4-1. 행정절차의 복잡함과 어려움

	1	2	3	4	5	
전혀 어렵지 않다	○	○	○	○	○	매우 어렵다

4-2. 익숙하지 않은 행정 용어

	1	2	3	4	5	
전혀 어렵지 않다	○	○	○	○	○	매우 어렵다

4-3. 공모 사업에 대한 해설과 교육 등 외부 지원

	1	2	3	4	5	
매우 부족하다	○	○	○	○	○	매우 많다

4-4. 담당 공무원의 친절한 태도

	1	2	3	4	5	
매우 친절하다	○	○	○	○	○	전혀 친절하지 않다

4-5. 담당 공무원의 협력과 도움

	1	2	3	4	5	
매우 협력적이다	○	○	○	○	○	전혀 협력적이지 않다

5. 귀하는 현재 마을사업 평가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주십시오.

5-1. 현재 마을사업 평가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매우 불만족한다	○	○	○	○	○	매우 만족한다

5-2. 귀하는 마을사업 평가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마을 공모사업의 양적 성장

③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만족도

⑤ 사업 참여 주민들의 인식 변화 정도
- ② 주민 네트워크의 확대 정도

④ 지속적인 자립 가능성

⑥ 기타 (⇒ 5-3 질문으로)

5-3. 마을평가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기타 의견이 있으실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는 현재 마을사업 지원 기관과 유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주시시오.

6-1. 현재 마을사업은 최대 3년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까운 번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매우 반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적극 찬성한다

6-2. 만일 3년 이상 마을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면 귀하는 어떤 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는 것을 하나만 골라주시시오.

- ① 재정 자립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
- ② 다른 주민사업과 협력하여 진행되는 사업
- ③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사업
- ④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 ⑤ 신규 마을사업을 지원하거나 협력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업
- ⑥ 기타 :

7. 귀하는 현재 민간과 행정이 힘을 합쳐 진행하는 민관협력 마을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무원의 비협조적 태도
- ② 마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 절차 등 제약
- ③ 너무 작은 지원 예산
- ④ 행정 권한의 민간 이양 미진
- ⑤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의 부재
- ⑥ 기타 (⇒ 7-1 질문으로)

7-1. 기타 의견이 있으실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8. 귀하는 마을사업의 전망과 관련하여 다음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가까운 번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8-1. 마을사업은 궁극적으로 주민 스스로 지방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주민자치를 지향하는 과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1	2	3	4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매우 동의한다

8-2. 2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을 개발하거나 예산을 늘리는 방식보다 사업규모를 줄이고 속도를 늦추어서 기존 사업이 자리를 잘 잡도록 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1	2	3	4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매우 동의한다

8-3. 마을 주민의 의견으로 마을계획이 수립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마을총회, 마을의회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심의/결정 기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1	2	3	4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매우 동의한다

9. 만일 귀하께서 마을사업의 전망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을 토론허기 위한 심의/의결 위원으로 선발되어 주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셔야 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참여 의향이 있다.
- ② 참여 의향이 없다.
- ③ 모르겠다.

10. 다음은 응답자 일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해당란에 체크 또는 내용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0-1. 성별

- ① 남자
- ② 여자

10-2. 연령

()세

10-3. 주거지

(구) ()

10-4.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표기해 주십시오.

① 공무원

② 마을활동가

③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④ 마을사업 참여 경험자

⑤ 기타 :

※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새로운 서울 마을공동체
정 책 수 립 을 위 한

어 젠 다 연 구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발행인 유창복, 김수현
발행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연구원

기 획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연구원
디자인/인쇄 플러스(PLUS) 02-2267-2290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 8동 3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089-0 93330

비매품

참 여 연 구 진

책임연구원
손우정(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김수경(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정책연구팀장)
연구원
나도삼(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
김재민(성공회대학교 박사)
장진숙(성공회대학교 박사수료)